역사 속 한국인에게 나타난 재미와 멋의 철학

글≫강준혁| 추계예술대학예술경영대학원원장

Representation of Philosophy of Fun and Style in Korean History

예로부터우리민족성과관련된타민족들의기록중가장빈번히나타나는것으로는‘ 음주가무에능한민족 ’이라는표현이다. 매년10월상달, 즉하늘에제사를지내는철이오면으레우리조상들은함께모여천제를지내고밤낮을가리지않고며칠씩음주가무를즐겼다는사실이외국민족에게는상당히특이하게보였던모양이다. 두천년전한국인들은드넓은만주와시베리아를말타고거침없이질주해대는호방함과동시에, 춤과노래라면뒤질수없는‘ 화끈한 ’민족이었다.

특히창의력이뛰어난고구려인들은세계최초로등자(말안장에걸린발걸이)를발명해냈는데, 바로이등자가말타는사람으로하여금두손을자유롭게해주었기때문에고구려벽화에나타나듯이고구려인들은달리는말위에서자유롭게활을쏠수가있었다(이등자의발명은고구려가그넓은영토를점령할수있었던힘의비밀중하나이기도하다). 한국인의‘ 화끈함 ’이‘ 은근과끈기 ’로바뀌는데는무려 1000년이상이걸리게되는데통일신라이후우리조상님네들은더이상영토의변화나유목민으로의회귀가있을수없다고판단하여농경민으로서의적합한근성과미덕과지혜를모으는데힘쓰게된듯싶다. 특히조선시대 500여년동안한국인의심성은대단히섬세하게다듬어지게되는데, 그렇다고해서 기마 유목민으로서 오랜 시간 체질화된‘ 융통성 ’이나 음주가무를즐기는경향등이사라진것은아니고툭하면한데모여음주가무를즐겼다. 또 한편으로는‘ 순발력 ’‘ 창의력 ’‘ 융통성 ’이뛰어난민족이다 보니 자연위트와유머가곳곳에넘쳐흐른다.

우리모두가즐기는판소리의경우에있어서도소리만잘해가지고는좋은판소리꾼이될수없다. 몸짓으로도재미를주어야하고재담도중요하다. 그래서 판소리는‘ 소리 ’와‘ 발림(몸짓) ’과‘ 아니리(재담) ’를3대요소로꼽지않는가?

남사당패의외줄타기(어름)도마찬가지여서줄위에서의기술도중요하지만일부러아슬아슬함을만들어내는연출력이나줄아래멍석위에앉아있는잽이(악사)들과주고받는재담이더욱큰재미를만들어내는것이다. 한국인의유모는 일상적인언어 속에서도쉽게발견할 수있다. 우리언어자체가형용사와부사처럼사물의표현영역이뛰어나게발달되어있기때문인지, 반대로섬세한표현욕구가섬세한언어를발달시키게했는지모르겠으나, 특히시골에서오랜세월살아온노인네들의언어는그자체로재미있고정감을느끼게해준다. 도시사람들이“ 구름이많이낀걸보니비가오겠군 ”할표현을그들은“ 사흘굶은시에미낯짝처럼잔뜩찌푸렸구나 ”라는말로언어가지닌표현전달기능과감성적에너지창조기능을한꺼번에발휘하곤한다. 이로써좌중은비가오겠다는소식과더불어말의재미를곁들여만끽할수있는것이다. 이러한말의재미까지판소리나탈춤그리고무당굿의사설속에도가득차있다.

신화속의유머감각

사실한국인은무엇이든지즐기는민족이다. 그위트와유머는신화시대로부터시작된다. 고구려벽화에나타난해신이받치고있는태양속에는삼족오, 즉‘ 세발달린검은새 ’가들어있다. 발이셋달린새라니얼마나기발한착상인가? 신령스럽지아니할수없기에아직도많은부적에는이세발달린유머러스한새가등장하게된다. 창의적인아이디어들은전래되는동화속에서도이어진다.‘ 한번굴러내릴때마다1년씩더살수있는고개 ’도있고,‘ 마실수록젊어지는샘물 ’도있어욕심쟁이할아버지를갓난아이로만들어버리기도한다. 어디그뿐이랴? 우리의도깨비는말로만무섭지실제로는어수룩하기짝이없어서뭐든지만들어내는만능방망이를노래주머니인혹하고바꾸기도한다. 어쩌면우리도깨비들은한국인을닮아노래를그처럼더중요하게여겼는지도모른다. 여하간동화속의도깨비란항상우리를즐겁게해주기위해등장할뿐이지사람을해치지는않는다.

탈춤의재미

한국인들의해학적표현이가장잘나타나는분야가탈춤일것이다. 아직까지도각지역에열서너개정도가전승되어오는탈춤은호남지역을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정월대보름이나 추석날 밤에 행해졌는데, 각지방이예외없이양반을골려대고파계승을야유하는내용을포함시키고있어탈춤판에서는웃음과박수가끊이질않는다. 사실탈들은그모습만보아도재미있는데, 이는그인물의특징과개성이잘묘사된캐리커쳐에서느낄수있는재미를훨씬뛰어넘고있다. 즉탈의움직임은보는이의각도에따라살아있는듯시시각각다른모습으로보여지기때문이다(이러한멋진탈들은탈춤이끝나면미련없이불태워졌는데이역시옛선조들의‘ 화끈함 ’을느낄수있는부분이다).

양반탈은체면과거짓위엄때문에놀림감이될수밖에없도록보이며, 양반자제인생원의탈은부모세도만믿고으시대는캐릭터로입이비뚤어져있어모자라보인다. 파계한노승은검은얼굴에엉큼함이새겨져있으며노승을유혹하는애사당이나소무의얼굴에는새침과내숭이배어있다. 궁뎅이춤으로유명한미얄할미의모습은그자체에궁상과박복이줄줄흐르지만, 왠지미워할수없는형태로발전해왔다.

이에비해, 서민층의영웅인말뚝이, 취발이등은그모습이실제인물로부터출발했다라기보다는도깨비처럼비실재적존재로부터흘러들어온듯한인상이다. 따라서이들은평범한인간보다더큰잠재력을지닌듯이보이게된다. 어쩌면가상적인물을연상케하는이탈들의모습에서한국인들은더큰재미를기대하는지모른다.

실제그대로나자연그대로에서는유머와재미를발견하기는힘들다. 자연자체는우리에게평온과평안함을가져다준다. 자연을대할때우리의긴장감은최저치가될것이다. 이러한점을한국인들은잘알고있었다. 그래서생활과관련된시각적인모든것, 즉집이나가구, 집기, 의상들은그모습이자연에잘어울리도록만들었다. 따라서이러한모습들에서는자를댄듯한인위적인직선들은찾아보기힘들는지모른다. 멀리서곧게자란나무를바라보면정확한직선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그렇지않듯한옥도마찬가지로멀리서보면반듯하고단정하게보이지만가까이보면어느하나자를댄듯한선은발견할수없는것이다. 이러한요소들이군데군데있기에시각적긴장감을완화시키고마음의평온함을잃지않게해주는지도모른다.

과장의재미

모든것이너무평온하고자연스럽기만하다면멋과재미도없을것이다. 그래서사물의작은한부분을자연스럽지않을만큼크게부풀리는데서찾을수있는‘ 과장의재미 ’는세계어디서든지찾아볼수있다.

판소리에등장하는놀부는보통심술이아니어서태어날때부터심술보까지달고나왔단다. 이심술보가제대로발동되기시작하면‘ 불난데 부채질, 미나리밭에소몰아넣고, 고추밭에서는말달리고, 애호박에말뚝박고, 늙은호박에는똥칠하고, 똥누는놈주저앉히고, 물동이지고오는처녀귀잡고입맞추고, 과객양반재워줄듯이붙들어놨다가해지면내어쫓고, 옹기장수(지게받쳐놓은) 작대차고, 신방에몰래들어가귀대고불이야소리치고 ’하니이쯤되면과장도극에달한다.

그착한흥보에대한과장된표현도마찬가지여서열둘이나되는아이들입힐것이없어큰거적대기에머리구멍만뚫어서같이쓰고다니다 또하나가소변볼라치면모두가줄줄이뒷간을따라간다. 또후에여유가생기자맨처음한일이몇가마의쌀로한꺼번에밥을지어마당에남산처럼쌓아놓고밥으로한풀이를해대는데, 너무배고픈아들하나는밥속에들어가속에서부터굴을파고나오면서밥을먹는가하면, 흥보는밥을경단처럼만들어공중에‘ 던져놓고받아먹고 ’를반복하는것으로표현되고있다. 과장이이쯤되면듣는이들이즐겁지아니할수없다.

한국인들의과장이극대화되는예는탱화의일부분인‘ 지옥도 ’에서도 보여진다. 인간의윤회를설파하고죄에대한사후대가를통해중생을구제한다는지옥도에서는생시에거짓말을많이한죄인을형틀에매달아놓고그혀를한없이길게뽑아늘려놓은다음, 소가끄는쟁기로그혀를 밭갈듯가는장면을보여주고있다. 이쯤되면참혹하다기보다는웃음이 절로나올수밖에없는것이다.

장난스러움

김홍도의조선시대풍속화‘ 빨래터 ’는, 치마를걷어올리고빨래하는아낙네를바위위에서부채로얼굴을가리고훔쳐보는선비의모습을장난스럽게보여주고있다. 또한‘ 무동 ’에서는등을보이고앉아서해금을연주하는악사의손을뒤집어그렸고‘ 씨름판 ’에서도뒤로오른팔을짚어 기대앉은장정의손을뒤집어그리는장난기를볼수있다. 마치화가가 무엇을잘못그렸는지구석구석잘살펴보라는듯하다.

장난기로유명한김삿갓이나봉이김선달이아니더라도지나칠정도의장난을서슴없이행하는인물들에대한얘기는수없이많다. 이러한장난들은그결과가어떠해도악의가없기때문에용서되기마련이고웃음으로끝을맺게된다. 마치약속하지않은게임을펼치는것과같다.

그러나우리나라에는다른나라사람들이라면꿈도못꿀약속의게임이하나있다. 전남진도를위시하여그주변일대에는‘ 다시래기 ’패들이있다. 이들은상가집을찾아다니며연희를파는패거리들로서가장비통해하는‘ 상주웃기기 ’를내기로거는것이다. 즉다시래기패들이날이새기전에상주를웃기게되면이패거리들은돈을많이받으며이들은장사치르는것을돕게된다. 물론이들을받아들이는경우는주로호상이라고불리우는제수명을다하고자연사한여유있는집안의경우일뿐이지만 상주를웃기겠다고덤벼드는사람들이나이를받아들여내기를거는상주나보통이아닌것만은틀림없다. 우리나라의경우죽은자에대한경외심은어느민족보다강하지만‘ 죽음 ’자체를 맞이하는데는실로대범하기짝이없다. 죽음이란하나의생의마감이자또다른생의시작인경계선일뿐이다. 따라서죽음앞에서술마시고노름하고노래부르지말란법이어디있냐는것이다. 그죽음이자연스럽게또제시간에찾아온경우라면더욱그러한것이다.

한국인은온갖재미를골고루즐길줄아는민족이다. 그재미는일상의편안함과자연스러움에활력소로서의긴장감을보태준다. 한국인에게는‘ 감각되어지는모든것 ’이즐길수있는대상이다. 음식에있어서도달고고소한것만이즐김의대상이아니라시고쓰고맵고한것모두가그리고이들의 다양한 배합이 즐김의 대상이기도 하다. 음악도, 언어도, 몸짓도물론즐김의대상이기에진지한면뒤에는흥겨움과유머가함께있으며근엄한얼굴뒤에는정감이숨겨져있다. 마치대금의찢어지는소리와지극히부드러운소리가한악기로부터울려나오듯양면을모두받아들일준비가되어있는것이한국인이기도하다. 그래서동네어귀에서있는장승의얼굴은무서움과우스움이함께하고있는지모른다. 그래서장삿집에서다시래기패들을불러들이고죽음과축제를함께나누는지모른다.

우리민족은물체의밝은면만을취하려하지는않았다. 빛이있으면반드시그림자가있기에이모두를실체로받아들이려했다. 인생은즐겁기도하고무상하기도하다는것이다. 먼옛날신라에물계자란사람이있었다고한다. 검술에능한장군이지만동시에거문고의달인이기도했단다. 많은사람들이그로부터검술을배우거나거문고를배우고자제자되기를청했단다. 물계자는검을배우러온사람에게는거문고를먼저가르쳤고거문고를배우러온자에게는검술을먼저가르쳤다. 검술을배우고자하는이는으레부드러운기운이부족했고거문고를배우러온자는강인한기운이 부족했기 때문이란다. 한국인들은 부분보다 전체를 중시했고 그 전체를이루는요소중빠질수없는것이재미와유머였을것이다.

강준혁(Junhyuck Kang) | 1947년생. 서울대학교미학과 졸업, 1977년4월<공간사랑> 개관에참여했다. 이후춘천인형극제를 기획(1988년)했으며종합문화기획사무실<스튜디오메타>를설립(1989년)했다.‘ 1998 프랑스아비뇽페스티벌 - 한국의밤예술자문을역임(1997년) 하기도했다. 주요수상으로는1996년 12월에한국연극협회선정‘ 제22회한국연극예술상공로상(춘천세계인형극제기획및운영) 을 들 수 있다. 현재추계예술대학예술경영대학원원장, (사단)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아카데미원장(1998년2월~), 스튜디오메타대표(1995년~) 등을맡고있다.